

미술사에 표현된 여신의 헤어 아트 연구

이현진¹⁾ · 김선아²⁾

1) 서경대학 피부미용과

2) 혜천대학 코디네이션 디자인계열

A Study on Goddesses Hair Arts Shown in History of Arts

Hyun-Jin Lee¹⁾ and Sun-Ah Kim²⁾

1) Dept. Cosmetology, Sejeong College Cosmetology, Seoul, Korea

2) School of Coordination Design, Hyecheon College, Daejeon, Korea

Abstract : Arts is the expression of reasoning and conscious life of human and arouse human the concept of existence, utmost emotion and excellent thoughts. Also it makes humans life very abundant. I make it come first to get rid of the art thirst on the opposite sight of technical one for hair as on part of humans body. Next purpose is that to confirm the esthetic value of 'hair arts' by solidify the academic ground of beauty arts through creating 'hair arts' works and learning and make the direction for the beauty industry and education of the next generation.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Greek myth and the hair styles of ancient Greek Goddesses. On the basis of that symbols I elaborated hair formative works made of metal and studied, analyzed and displayed that. Work No.1 'aphne' pictures the second of changing into a laurel tree avoiding the love. Secondly 'Muse Erato' was exhibited the peaceful figure that have enough the fine melodies. 'Leda' brings out the feature of Leda resembling a swan and the fourth piece, 'Eos' conveys the brilliant and mystery of dawn. So this study conducted based on the concept of practical hair and have made efforts to be close to theoretical manufacturing research needed at making hair arts works and academic one needed at organic design composition for pioneering new field, 'art hair.' I hope these 'hair arts' works make creativity of the practise hair alive. It will be very thankful to me if this study can help even though slightly for splendid beauty arts to make its status firm as a one part of arts, and there are following studies.

Key words : greek, myth, goddess, hair arts, history of arts

1. 서 론

우리의 삶속에서 예술은 인간의 이성적의식적 생활의 표현이자 인간에게 존재의식과 최고의 감정과 우수한 사상을 불러일으키며,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인간은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예술과 함께 해왔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적인 창조활동을 우리에게 미술의 역사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있다. 또한 예술은 아름다움이며, 예술에 속한 디자인은 기능과 표현을 포함한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디자인의 경향이 개성화다양화세계화되는 것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또한 인간성 회복과 조형의식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의 헤어는 예술의 한 형태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에게는 자신의 내적인 면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로서

의 역할을 한다.

헤어 아트는 감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매체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일부 미용 예술가들은 헤어에 대한 미의 표현방식을 전통적인 형식과 내용에서 탈피하여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독특한 표현양식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헤어아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헤어아트'에 대한 작품들의 표현과 제작은 다양화 되며 증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헤어아트'를 이론적으로 적립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안문경(2006)의 '동선을 이용한 헤어아트 조형성 연구', 박해경(2006)의 '깃털 장식을 이용한 헤어아트 연구', 최은숙(2007)의 '헤어아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등이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연구됨으로써 '헤어아트'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한 수준에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예술의 관점에서 시작된 '헤어아트'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2005년에 조명한 '헤어아트'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시도되었다. 헤어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기술적 시각의 반대관점으로 예술적 가치를 해소하

Corresponding author; Sun-Ah Kim
Tel. +82-42-580-6241, Fax. +82-31-763-5437
E-mail: sunna-kim@hanmail.net

는데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헤어아트’ 작품의 창작과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미용예술 영역의 학문적 기반을 다져 ‘헤어아트’의 미학적 가치를 확인하고 차세대 미용 산업과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헤어아트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예술(藝術)은 ‘예(藝)’가 인간적 결실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교양의 씨를 뿌리고 인격의 꽃을 피우는 수단으로 여겼으며, 인격도야의 뜻도 함께 있다. ‘술(術)’은 어떤 곤란한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방도(實行方途)로서 ‘기능(機能)’ ‘기술(技術)’을 의미한다. 한편 예술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테크네(techn), 라틴어 아르스(ars), 영어 아트(art), 독일어 쿤스트(Kunst), 프랑스어 아르(art) 등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하였던 말로서, 오늘날 미적(美的) 의미에서의 예술이라는 뜻과 함께 ‘수공(手工)’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를 포괄한 말이다. 이러한 기술로서의 예술의 의미가 예술 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미적 의미로 한정되어 기술일반과 예술을 구별해서 ‘미적 기술(fine art)’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naver.com). “미술작품(art)은 어떤 신비스러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물체”(백승길·이중승, 2003)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

예술의 영역은 확장되고 지속되고 있다. 예술의 확장은 미용에도 영향을 주어 ‘미용예술’ 즉 뷰티아트(Beauty Art)라는 전문용어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분화된 분야의 네일아트(Nail Art)의 용어도 일반화되었다. 그 영향은 실용헤어와 구분된 헤어아트에서도 나타나 아트(Art)적 시각으로 헤어(Hair)를 조명한다는 의미로 헤어아트(Hair Art) 즉 예술헤어가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최은숙, 2007). 또한 헤어아트를 ‘미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헤어의 또 다른 영역’, ‘평면적인 미술에 헤어의 조형성을 가미한 예술’, 즉 ‘미술머리’, ‘예술머리’라 개념화 한다(안문경, 2007)는 선행논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의 정신세계에서 모색된 결과물이 작품에 내포되어있는 상징들을 타자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헤어아트’를 정의한다.

2.2. 미술사에 표현된 그리스 신화

신화와 유럽의 문학예술전통 : 문학과 예술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청동기시대, 중세·암흑기, 상고기, 고전기, 헬레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절제와 중용,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정신으로 고대 그리스 예술에 잘 반영되어 전해 내려왔다. 그러나 기독교가 지배하던 중세 천 년 동안 문학과 예술 면에서 2차 암흑기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고대 그리스의 신화는 파문히게 된다. 이 시기에 서양 문화는 헬레니즘에서 헤브라이즘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암흑 속에 묻혀있던 헬레니즘의 그리스 신화가 14세기 르네상스 운동으로 화려하게 부활

한다. 신 중심의 헤브라이즘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이성과 자유, 그리고 존엄성이 위축되던 중세의 암울한 분위기에서 헬레니즘이 비춰주는 빛을 바라보며 일으킨 르네상스는 문예부흥이요 인간 혁명이었다.

그리스 문화는 기원전 9세기 무렵부터 시작하여 기원전 323년경의 헬레니즘시대로 이어진다. 기원전 2세기 로마는 헬레니즘 문화를 모태로 해서 비잔틴-로마 문화를 만들어 냈으며 문학과 조각, 벽화 등을 곳곳에 설치함으로써 신화 문화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원후 380년에 기독교의 유일신을 제외한 모든 신들의 경배를 금지하면서 그리스 신화 대신 성서에 나오는 장면이 회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전 문화권을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그리스의 신들을 대체한 것은 무엇보다도 악마들이었으며, 고대의 신전과 성소의 유적지의 그 잔해들은 새로운 기독교 건축에 활용되었다. 남부 아를르(Arles)의 조각가들은 기독교인들의 석관 덮개에 에로스와 프시케, 이오스 쿠로이 형제를 장식했으며, 12세기 말의 수도원 분수에서 뜻하지 않은 이교 장식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분수의 수반(水盤) 둘레에 새겨진 30여개의 머리 부조(浮彫) 장식 중에는 유피테르, 넵투누스(포세이돈), 테티스, 바쿠스(디오니소스) 등이 있었다. 민간전승을 통한 신화의 혼함과 변모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리스 신화는 그렇게 존속했다.

비잔틴 세계에서는 고대 그리스 문화의 흔적이 비교적 제대로 보존되었지만, 라틴어 권에서는 중세 천 년을 거치면서 그리스 신화가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변질되었다.

중세에서 르네상스 문화로의 변화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가 중세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며 서서히 일어났다. 비잔틴의 철학자 플레톤(George Gemistus Plethon)은 고대 스파르타 근처의 미스트라에 비밀 결사까지 만들어 신플라톤주의를 가르쳤고 신화를 포함한 고대 그리스의 전통 문화를 익혔다.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의 라틴어 ‘레나스코르(renaxcor)’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4세기 이탈리아의 학자와 예술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과 예술에 탐닉하면서 고대 문화를 모방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일궈내려고 했다. 신학보다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문학과 예술에 열중했던 지식인들을 인문주의자라는 뜻인 ‘휴머니스트(humanist)’라고 부른다. 최초의 인문주의자는 이탈리아의 페트라르카(Fancesco Petrarca)와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였다(이진성, 2004). 대략 천 년간의 중세문화권을 지난 후부터, 폐허화 된 로마에서 고대의 유물을 찾아내면서 고대를 찬미하고 모방하려는 인문주의자들은 간접적이 아닌 유물을 통해 직접 원전을 읽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르네상스는 고대의 소생과 함께 서구의 근대를 열었다. 기독교 전통과 함께 고대 그리스 문화를 모방·활용하는 문학·예술 전통이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며 근대 문화를 이끈다. 문인들은 물론 르네상스기

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도 기독교 전통과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가 들려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많은 명작들을 남겼다(이진성, 2004).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1900년에 간행된 『꿈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정신분석학적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 이름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했으며 이는 그리스·로마신화로 부터 차용해온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신화는 결국 ‘승화(sublimation)’의 표현이고 ‘상징’이며, 고대인들의 동경과 공포, 그리고 그들의 의식적인 도덕이 강제로 억압했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고대인들의 ‘무의식’ 세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몇몇 신화만을 해석했을 뿐이다.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올림픽경기, 아폴로우주탐사,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에로스와 프시케 등의 언어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의 어원이나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세계의 어떤 신화보다도 양과 질에 있어서 앞선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것은 여타 신화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내용과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윤일권·김원익, 2004). 이렇듯 그리스·로마 신화는 수없이 반복과 변용을 거치면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며, 상상력의 보고로 자리 잡고 있다.

회화에 표현된 여신 : ① Daphne(다프네) - 에로스의 심술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남긴 다프네는 아폴론을 피해 월계수가 되고 만다. 아폴론은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없는 다프네를 성수(聖樹)로 삼아 왕관 대신 월계관으로 사용했으며, 아폴론과 다프네 이야기는 오늘날 예술가들의 영감에도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다. 푸생이 그린 「아폴론 앞에서 월계수로 변신하는 다프네」(Fig. 1)와 파리의 카뤼셀 공원 연못에는 쫓고 쫓기는 아폴론(Fig. 2), 티에폴로가 그린 「아폴론과 다프네」(Fig. 3, 4), 15세기 화가 폴라이올로가 그린 「아폴론과 다프네」(Fig. 5) 등 다양한 회화와 조형작품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에 따른 고통의 모습을 아름다움과 월계관으로 승화시킨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된 다프네의 hair style은 나뭇잎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Muse Erato(뮤즈 에라토) - 뮤즈의 기원은 아주 오래되고 확실하지 않다. 뮤즈에 대한 구분은 헤시오도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9명의 뮤즈로 클리오·에우테르페·탈레이아·멜포메네·테르프시코레·에라토·폴립니아·우라니아, 그리고 이들의 우두머리인 칼리오페의 이름을 꼽았다. 뮤즈는 종종 처녀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조각가들은 뮤즈들에게 각각 다른 상징물, 예를 들면 수금(豎琴)이라든지 두루마리 같은 것을 덧붙여 조각을 했다. 이러한 관례로부터 이를테면 클리오의 역사의 뮤즈, 에라토는 연애시의 뮤즈, 우라니아는 천문학의 뮤즈라는 식으로 뮤즈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예술과 과학을 관장하는 것으로 상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되는 이름들은 모두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며 서로 많이 다르다(<http://enc.daum.net>).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여러 회화작품들 중에서 음악·문학·예술을 관장하는 9명의 Muse들은 Apollon과 함께 자주 등장한다. 그중에 17세기화가 라 쉬에르의 작품(Fig. 8)에 표현되어 있는 Erato는 독창에 관여하는 여신으로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③ Leda(레다) -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Leda)는 백조를 좋아했다. 제우스는 백조의 모습으로 레다를 유혹하여 그녀의 몸에서 두 개의 알을 낳게 한다. 두 개의 알에서 헬레네와 클리타임네스트라 그리고 쌍둥이 형제 디오스쿠로이가 태어난다(윤일권·김원익, 2004). 뒷날 트로이아를 불바다로 만들고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여신인 아프로디테만큼이나 아름다운 글자 그대로 경국지색(傾國之色)인, 나라 하나를 들어먹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 헬레네를 낳았다. 다빈치의 그림(Fig. 6)에 표현된 레다의 얼굴은 「모나리자」 느낌을 준다. 이곳에서 표현된 레다의 hair style은 up style로 완숙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Eos(에오스) -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이라고도 한다. 에오스가 트로이아왕 라오메돈의 아들 티토노스를 사랑하여 낳은 아들이 멤논이다. 멤논이 아킬레우스와 싸우다 전사하자 에오스는 저녁 무렵까지 기다렸다가 눈물을 흘렸다. 에오스는 아들 잃은 슬픔을 삭이지 못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침 일찍 풀밭에서 볼 수 있는 ‘이슬’이라한다(이윤기, 2003). ‘케팔로스’는 ‘잘생긴 머리’라는 뜻이다. 그림에도 케팔로스가 잘생긴 청년으로 그려져 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어둠을 배

Table 1. 조각과 회화속의 여신



Fig. 1. 푸생 「아폴론과 다프네」. Fig. 2. 파리 「아폴론과 다프네」. Fig. 3. 티에폴로 「아폴론과 다프네」. Fig. 4. 티에폴로 「아폴론과 다프네」. Fig. 5. 브르জে제 박물관 대리석상. 「아폴론과 다프네」. Fig. 6. 다빈치 「레다」. Fig. 7. 「에오스 여신과케팔로스」. Fig. 8. 「뮤즈 멜포메네, 에라토, 립니아」.

출처 : 이윤기(2003). 별편치의 그리스로마신화. 서울: 도서출판 창해.

경으로 새벽빛의 너울을 쓰고 있다(Fig. 7). 에오스의 헤어스타일은 up style로서 아침 햇살의 영롱함을 느낄 수 있다.

2.3. 헤어디자인

디자인의 개념 :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모두 장식미술, 응용미술과 같은 용어로서 미술이라는 개념 속에 순수미술과 대등하게 자리할 수 있는 위상을 확립해 나가게 되었다(심귀연, 2005). 즉, 이전까지의 디자이너는 장식 도안가 또는 모양의 고안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요구되는 디자이너는 장식하는 것을 포함한 제품의 기능이나 구조, 가공기술 등의 종합계획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었다.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 연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은 특히 자연의 유기적 형태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법칙을 추출해서 인공물의 기능적 형태를 결정해 왔을 정도로 자연의 형태는 디자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문재원, 2004). 예술가운데 공간적인 형태의 시각적 예술품을 만들어 내는 일을 조형예술이라고 한다. 조형이란 물건을 만들 때 형태를 잡는 것이며, 조형에는 반드시 색이 따른다. 그러므로 조형이란 모양과 색채, 질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셋이 합쳐진 것을 디자인이라고 한다.

헤어디자인 요소 : 헤어디자인은 토달 패션의 한 요소로서 좁게는 전체 패션의 영향을 받으며, 넓게는 시대적 배경과 그 사회의 문화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life style에 따라 변화한다(심귀연, 2005). 형태는 디자인 전체의 시각적인 외형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형태란 평면이나 볼륨을 암시하거나 나타내면서 형, 크기, 색채 그리고 질감의 모든 시각적 요소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모든 실제 물을 말한다. 헤어디자인에서 형태는 작품 그 자체로서 예술적 의미를 갖는 조각과 같은 순수예술에서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헤어 디자인에서 형태는 제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문재원, 2004). Hair

design에 있어 형태(style)(Fig. 9)는 hair cut로 색채(color)(Fig. 10)는 hair coloring으로 질감(texture) (Fig. 11)는 permanent wave에 비유 할 수 있다.

형태의 디자인 원리 : 디자인 원리란 어떤 실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야 할 각 부분(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구조적 계획으로서 통일, 균형(대칭, 비대칭), 비례, 리듬(반복, 점이), 조화, 강조, 대비로 구분할 수 있다.

2.4. 금속의 조형성

인류와 금속과의 만남은 기원전 7,000~8,000년 전이라고 일컬어지며 그중에서 동(銅)은 기원전 6,000년경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발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금속이다. 구리는 동(銅)이라고도 하며, 은·금과 함께 화폐금속이라고도 한다. 구리의 영어명인 copper는 옛날 구리의 산지(產地)였던 그리스의 카프로스섬(Cyprus 島)의 라틴명 Kyprus 혹은 Cyprium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Cu의 상징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한다(임옥수, 2002).

동은 주기율표 11족의 구리족 원소에 속하는 금속으로 원소 기호: Cu, 원자번호: 29, 원자량: 63.546, 녹는점: 1084.5°C, 끓는점: 2595°C, 비중: 8.92(20°C)이다(http://naver.com).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도가 대단히 높고, 천연에서 유리 상태로 존재한다. BC 8000년경 신석기인들이 처음으로 돌 대신 천연 구리를 사용했다. BC 4000년경에는 이집트에서 구리를 열처리하고, 불과 석탄을 이용해 광석으로부터 금속 구리를 얻어냈으며 BC 3500년경에 주석과 섞어 청동을 만들어내면서 이집트에서 야금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대부분의 구리를 키프로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키프로스의 금속’이라 했다. 그 뒤 키프로스의 금속을 줄여 cyprium으로, 나중에는 cuprum이라 하게 되었다(http://enc.daum.net).

Table 2. 헤어 디자인의 3요소




| 분류 | 특징 | 이미지 |
|-------------|--|---|
| 형태(Shape) | 3차원 형태는 여러 개의 2차원 형태로 평면상에 그려질 수 있으며 동일한 형태의 모든 다른 방향에 시각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형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외형을 말한다. 헤어디자인에서의 형태는 구형, 장구형, 편구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헤어스타일을 만들어 완성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윤곽을 말한다. |  |
| 색채(Color) | 색채는 가장 본능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요소이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눈으로 보이는 모든 외양은 색의 밝기에 의해서 나타난다. 헤어디자인에는 전체적인 머리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질감과 볼륨이 색채로 인해 만들어 질수 있는데, 대조반복진행교대로 분류 한다. |  |
| 질감(Texture) | 질감은 형태, 색채와 더불어 디자인의 필수요소로서 디자인에 사용된 재료의 표면성격에 관한 것이다. 헤어디자인에서 질감이란 머릿결(모질)을 말하는데 촉각과 시각으로 느낄 수 있으며, 비활동적인(un activated)와 활동적인(activated)로 분하며 헤어 표면의 질을 말한다. |  |

Fig. 9. 형태.

Fig. 10. 색채.

Fig. 11. 질감.

Table 3. 형태의 디자인 원리

| 디자인원리 | 특징 |
|----------------|---|
| 통일(unity) | 통일이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에 질서를 주는 유기적 조화를 의미하며, 형태의 디자인 원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김가연, 2003). |
| 균형(balance) | 균형은 본래 ‘저울’이라는 뜻이며 두 개의 것을 저울에 달아 양자가 똑같은 중앙의 지점을 가리키는 상태를 의미한다(임연용, 1994). |
| 대칭(symmetry) | 균형이 잡힌 상태. 통일감과 안정감을 얻기 쉬우나 딱딱한 느낌을 줄 수도 있음(문재원, 2004). |
| 비대칭(asymmetry) | 가운데 중심선을 기점으로 좌우가 균등하지 않을 때 또는 상하를 기점으로 균등하지 않을 때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룬다(김가연, 2003). |
| 비례(proportion) | 비례는 ‘비율, 분할’을 뜻하는 것으로 대소의 분량, 장단의 차이,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와의 수량적 관계가 미적으로 분할될 때 좋은 비례가 형성되며 이것을 황금비라 한다(문재원, 2004). |
| 리듬(rhythm) | 리듬은 각 부분사이에 시각적인 강한 힘과 약한 힘이 규칙적으로 연속될 때 생긴다(김명석, 1993.) |
| 반복(repetition) | 동일한 요소나 대상 등을 두 개 이상 배열 시켜 시선이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동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울동감을 나타나게 함(문재원, 2004). |
| 점이(gradation) | 단계적인 변화, 즉 점차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뜻함. 반복의 경우보다 한층 동적인 표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는 사람들에게 힘찬 느낌을 줌(문재원, 2004). 점이는 단계적인 변화 즉 점차적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
| 조화(harmony) | 조화는 심미적이고 감각적인 면에서 측정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모든 디자인 형식의 기초임과 동시에 이를 총괄하는 구성 원리이다. |
| 강조(emphasis) | 강조는 어떤 주변 조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변화를 주는 요소로서 강조되는 현상은 집합 물로부터 언어지며, 강조는 잇달아 일어나는 시간적 요소를 내포한다. |
| 대비(contrast) | 대비는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반대되는 성질을 배치시켜 긴장감을 자아내거나 극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다. 대비는 서로 다른 조합에 의해서 생기는데, 시각 상 힘의 강약에 의한 형의 감정 효과라 할 수 있다(문재원, 2004). |

출처: 채수명(2000).

3. 연구방법 및 작품제작

3.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대, 르네상스, 현대미술에 표현되어온 신화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이용하여 미술사에 표현된 여신의 모습을 전개하기로 한다. 작품제작의 주재료는 금속인 동(銅)으로서 이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형작품에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건축, 의상 등의 금속을 사용한 조형작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금속 중에서도 동(銅)은 재질의 특성이 유연하고 표현이 자유로워서 ‘헤어아트’를 제작함에 있어 적합한 소재로 판단되었다. 연구의 자료는 고대의 미술사, 문화사, 미술론 등의 문헌과 선행연구논문들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그 당시의 헤어스타일은 현존해 있는 것이 없으므로 예술작품에 나타나는 디자인을 토대로 ‘헤어아트’의 조형작품으로 제작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화와 유럽의 문학예술전통과 회화에 표현된 여신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을 알아본다. 둘째, 헤어 디자인의 3요소와 형태의 디자인 원리 등을 알아본다. 셋째, 금속의 조형성에 대해 연구한다. 넷째, 여신의 상징성을 토대로 하여 헤어디자인의 조형성과 금속을 소재로 한 작품의 분석·응용을 통해 헤어조형작품에 표현 할 근거와 방법을 연구한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프네, 뮤즈 에라토, 레다, 에오스 총 4작품을 제작 연구 분석 게재한다.

3.2. 작품제작

헤어미용분야에서 헤어아트와 관련된 새로운 장르가 발표되

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한 헤어작품으로 동선, 동망, 동관, 황망, 스텐레스망 등의 금속과 비즈를 사용하여 ‘헤어아트’로 명명 할 수 있는 본인의 조형작업을 통해 연구 분석 제작하여 게재한다.

작품1 Daphne(다프네)는 생동감 넘치며 애절하게 조형화하였다. 작품2 Muse Erato(뮤즈 에라토)는 월계관을 쓰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하고 있는 여신의 모습으로 평화로움을 조형화 했다. 작품3 Leda(레다)는 백조의 목선과 레다의 각선미의 공통점을 헤어의 선으로 표현하여 헤어아트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고 여인의 성숙함을 표현하였다. 작품4 새벽의 여신 Eos(에오스)는 어둠을 배경으로 새벽빛 색깔의 너울을 쓰고 아름다운 몸과 영롱한 빛을 발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4. 결론 및 제언

예술은 미술과 문학이 만나고 음악과 만나면서 이름과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예술은 지속적인 창작 활동에 의해 인간의 영혼을 더 맑게 높은 수준으로 승화시켜준다. 또한 예술은 인간에게 안락함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삶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면서 신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창작의 모티브를 ‘회화와 조각에 표현된 여신’에 두었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서양 문명 특유의 개인주의 인본주의현세주의현실주의합리주의 등의 정신에 의해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주제로 여신을 선택했다. 특히 회화와 조각에 표현된 여신들의 모습에서는 아름다움의 표본으로 상징되어 있

Table 4. 작품1 다프네



Fig. 12. 베르니니(1622). 아폴론과 다프네
출처: 이진성 그리스 신화의 이해 (2004)



Fig. 13. 일러스트

개념 : 신화적배경(월계수로 변하는 다프네)

형태 : 장구형(長球形 Prolate), 리듬조화통일

질감 : 비활동적인 (un activated)

색 : 적갈색. 반복(Repetition)

소재 : 동선, 비즈, 동망, 나무

- ① mannequin의 두상에 맞추어서 3 mm동선을 이용하여 토대를 만든다.
- ② 고목에 3 mm동선을 이용하여 감아 준 후 비즈를 사용하여 장식을 연결한다.
- ④ 동 망으로 나뭇잎을 만든다.
- ⑤ 0.05×50 cm의 동선 약100개와 0.05×15 cm의 동선 약50개를 각각 평평하게 연결하여 머리카락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
- ⑥ 토대에 ②의 나무모양을 고정시킨 후 나뭇잎을 고정한다.
- ⑦ 프린트에 머리카락형태로 장식한다.



Fig. 14. 완성도 (40 cm× 30 cm×75 cm)

Table 5. 작품2 뮤즈 에라토



Fig. 15. 의스타슈. 뮤즈 세자매 출처: 장영란의 그리스 신화(2005)



Fig. 16. 일러스트

개념 : 신화적배경(월계관을 쓴 음악의 여신 에라토)

형태 : 장구형(長球形 Prolate), 리듬조화비대칭

질감 : 비활동적인 (un activated)

색 : 노란색, 적갈색. 대조(Contrast)

소재 : 동선, 비즈, 동망

- ① 동선을 이용하여 토대를 만든 후 0.3×40 cm동선을 연결하여준다.
- ② 두상위쪽에 동선을 사용하여 나뭇가지를 만든후 비즈를 연결한다.
- ③ 동망과 신주망을 이용하여 삼각형으로 자른후 나뭇잎을 만든다.
- ④ 동망 나뭇잎은 토대에 고정하고 신주나뭇잎은 월계관을 고정한다.
- ⑤ 머리카락으로 표현된 동선을 앞 올림 형태의 스타일이 되도록 잘라준다.
- ⑥ 머리카락부분을 안 말음으로 형성한 후 끝부분에 비즈로 장식한다.



Fig. 17. 완성도 (30 cm×40 cm× 80 cm)

Table 6. 작품3 레다



Fig. 18. 레오나르도. 레다와백조
출처: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2002)



Fig. 19. 일러스트

개념 : 신화적배경(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함께한 레다)

형태 : 장구형(長球形 Prolate), 리듬조화비대칭

질감 : 비활동적인 (un activated)

색 : 적갈색. 반복(Repetition)

소재 : 동선, 동망, 진주

- ① mannequin에 실리콘을 사용하여 foundation을 완성한다.
- ② 동 망으로 토대를 감싸준다.
- ③ 동 망으로 감싼 두상에 동 망으로 감싸놓은 머리카락 8개를 헤어라인부분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고정된 머리카락을 볼륨을 형성하면서 back point 부분에 위치시켜놓은 고정점으로 모아준다.
- ④ back point에 모인 동선과 동 망을 모두 하나로 모아서 장식이 올려 질 수 있도록 묶어 놓는다.
- ⑤ 15 cm×60 cm의 동 망을back point에 고정시킨 후 컬의 모양을 형성하여준다.
- ⑥ front hair line부분에는 진주로 장식된 머리카락으로 고정한 후 트위스트의 컬을 형성한다. back point에 고정시킨 후 컬의 모양을 형성하여준다.



Fig. 20. 완성도 (30 cm× 50 cm×60 cm)

Table 7. 작품4 에오스



Fig. 21. 피에르 게랭. 에오스
출처: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2002)



Fig. 22. 일러스트

개념 : 신화적배경(찬란한 새벽 빛을 발하는 에오스)

형태 : 장구형(長球形 Prolate), 리듬조화대칭

질감 : 활동적인 (activated)

색 : 적갈색, 반복(Repetition)

소재 : 동선, 비즈, 동망, 동판

- ① mannequin에 실리콘을 사용하여 foundation을 완성한다.
- ② 동선으로 golden point에 헤어스타일의 중심이 될 위치를 정한 후 동판을 감싼다.
- ③ foundation을 동망으로 감싼 후 삼각형의 동판을 장식한다.
- ④ 동판을 8 cm×15 cm로 잘라서 front bang으로 장식한다.
- ⑤ 동판을 2 cm×50 cm로 잘라서 back 쪽의 장식머리로 고정된 뒤 트위스트 curl을 형성한다.
- ⑥ 동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front hair line 부분에 장식을 한 뒤 out curl을 한다. 판을 감싼다.



Fig. 23. 완성도 (35 cm×35 cm×65 cm)

지만 여신들의 운명과 저항 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고통들도 함께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작품 소재로 선택되어 지면서 우리에게 여러 의미의 모습과 교훈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술로 표현되어진 여신들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모습들은 예술가의 조형작품들에서 녹아 있으며, 이런 작품들 중에서 종합적인 이미지를 전개하여 헤어 아트로 표현하였다.

여신을 모티브로 하여 금속의 조형성을 헤어아트에 적용하기 위해 첫째, 신화와 유럽의 문학예술전통과 회화에 표현된 여신을 중심으로 헤어스타일을 알아보고, 둘째, 헤어 디자인의 개념과 3요소, 형태의 디자인 원리 등을 알아봤다. 셋째, 금속의 조형성에 대해 연구하고 헤어아트에서의 금속 표현방법과 응용 방법의 창의성을 연구했다.

여신의 상징성을 토대로 하여 헤어디자인의 조형성과 금속을 소재로 한 작품의 분석응용하여 총 4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1 Daphne(다프네)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고목나무에 동선을 감아서 나무로 표현하였고 동(銅)망을 사용하여 월계수 잎으로 표현하였다. 아직은 남아있는 탐스러운 머리카락은 가는 동(銅)선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머릿결로 표현하고 생동감 넘치며 애절하게 조형화였다. 작품 2 Muse Erato(뮤즈 에라토)는 장구형(長球形)의 형태와 노란색, 적갈색. 대조(contrast)의 색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층이 없으며 안으로 꺾을 형성하는 모습으로 비활동적인 질감표현을 했다. 월계관을 쓰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하고 있는 여신의 모습을 안정감 있게 조형화 했다. 작품3 Leda(레다)는 백조의 목과 유사한 느낌이 나도록 동선을 사용하여 볼륨을 형성한 장구형(長球形)의 형태와 적갈색의 반복(repetition)적인 색을 사용하였으며, 비활동적인 질감표현을 함으로써 여인의 성숙함을 표현했다. 작품4 새벽의 여신 Eos(에오스)의 헤어를 동판과 동선을 사용하여 올림머리의 형태를 만들었으며, 이때 톨컬의 기

법을 사용하여 액티베이트한 질감처리를 했는데 이때 톨컬 형성에 의한 각도와 빛의 반사작용에 의해 새벽의 여신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발산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실용적인 헤어’라는 개념에서 ‘미술 헤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 위한 시작점에서 ‘헤어아트’의 작품 제작에 필요한 제작도형의 이론적 연구와 체계적인 디자인 구상의 필요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근접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헤어아트’의 조형작품이 실용헤어의 창의성에 영감을 불러 넣어 주길 바라며, 완성도 높은 ‘미용예술’이 예술의 한 분야에 자리매김 하는데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후속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기연 (2003) 헤어디자인의 형태 도출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석 (1993) 제품의 시각적 이미지와 감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p.21.
 김숙 (2003) “고대 그리스미술과 신화”. 시공아트, 서울.
 노성두 (2000) “보티첼리가 만난 호메로스”. 한길아트, 서울, p.194.
 류계화 역 (2002) “신화와 예술”. 청년사, 서울, p.33.
 문제원 (2004) 자연의 유기적 형태 표현에 관한 헤어디자인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승길이종승 (2003) “서양미술사”. 도서출판 예경, 서울, p.32.
 심귀연 (2005) 바우하우스 조형이론과 비탈사순 헤어커트의 상관성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문경 (2007) 동선을 이용한 헤어아트 조형성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원 석사학위논문.
 원형준 (2003) “그리스미술”. 시공아트, 서울.
 윤일권, 김원익 (2004)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문화”. 문예출판사, 서울, p.23, 62.
 이윤기 (2002) “그리스 로마신화”. 웅진닷컴, 서울, p.112.
 이진성 (2004) “그리스 신화의 이해”. 아카넷, 서울, p.24, pp.408-477.
 임연용 (1994) “현대디자인론”. 학문사, 서울, p.361.

임옥수 (2002) 동합금의 재료적 특성과 그 조형적 해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수명 (2000) “디자인 센스”. 도서출판 국제, 서울.

최은숙 (2007) 헤어아트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서경대학교 미용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ivot P. (1994) “Hair Design”. pp.10-15.

<http://100.naver.com/100.nhn?docid=114540>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8m1157a>

<http://100.naver.com/100.nhn?docid=20549>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02g1963b>

(2007년 7월 5일 접수)
